통도사서 만나는 태국 성보

10월 3일, 성보博 순회특별전 개막
태국 불교미술 특별전 동시 개최
양국 불교 문화 교류의 장 마련
27년 만에 상설전시실 전면 개편
최초 공개 유물 등 12월 4일까지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오랜 세월 한국불교의 전통을 지켜온 통도사의 성보(聖寶)와 바다 건너 동남아시아 상좌부 불교를 대표하는 태국의 성보가 한자리에서 만났다.

통도사성보박물관(관장 진응 스님)은 상설전시실 새 단장을 마치고, 국립중앙박물관과 공동 주최하는 순회특별전 '어메이징 타일랜드: 태국 불교미술'을 10월 3일 개막했다.

통도사성보박물관장 진응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박물관의 오랜 역사를 회고하며 "한국전쟁 당시 통도사가 야전병원이 된 혼란스러운 시절에도 스님들은 성보를 품에 안고 지켰으며, 지금의 성보박물관이 개관하기까지 산중 어른 스님들의 뼈를 깎는 노고가 있었다"고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어 "국가유산청과 경상남도, 양산시의 지원으로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해 오늘에 이른 만큼 통도사의 역사와 성보에 담긴 이야기들을 다음 세대에 전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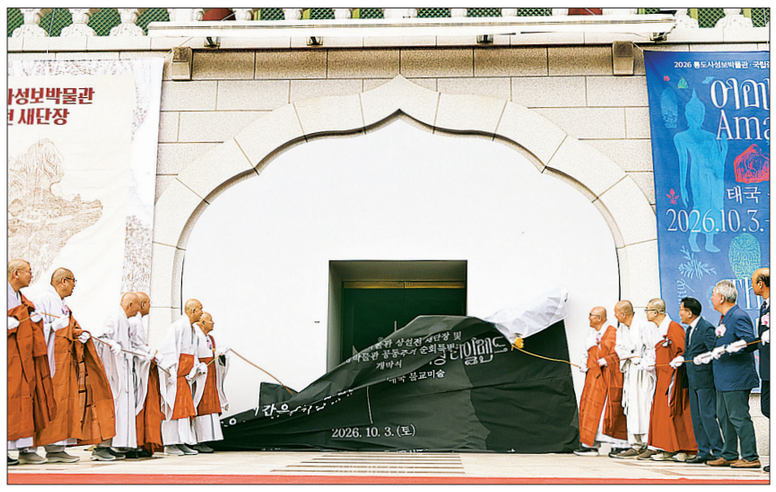
주지 현덕 스님은 환영사에서 "새 단장한 전시를 통해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성보문화유산을 선보이게 된 기쁨을 대중과 나누고 한국과 태국 두 나라의 불교문화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발원한다"고 전했다.

내외빈들은 박물관 입구에서 제막 행사와 개막 커팅식을 거행하며 전시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커팅식 이후 참석자들은 기획전시실에서 '어메이징 타일랜드: 태국 불교미술' 순회특별전을 관람했다. 이어 '시공간을 잇는 성보'와 '붓으로 그린 부처님 말씀'이라는 두 가지 테마로 새롭게 꾸며진 상설전시실을 둘러보며 한국과 태국 불교미술의 정수를 체험했다.

특히 2층 기획전시실에 단독 전시된 14세기 수코타이 양식의 '걷는 부처'는 관람객이 부처님과 고요하게 마주하며 자신의 마음을 깊이 돌아보도록 연출돼 주목을 받았다. 전시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는 상시 체험 프로그램 '황금빛 소망을 피우다' 공간이다. 이곳에서는 불상에 금박을 붙이며 복을 쌓는 태국의 '금박 공양(삐 통, Pit Thong)'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새 단장한 상설전에서는 통도사에만 존재하는 특이한 불화인 '오계수호신장도'가 최초로 공개되며, 보물 '은제도금아미타삼존불상' 등 다수의 귀중한 성보를 상시 관람할 수 있다.

상설전은 상시 관람할 수 있으며, 태국 불교미술 특별전은 12월 4일까지 이어진다.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 10월 4일부터 12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유료(일반 3000원, 청소년 및 어린이 2000원)로 운영한다.



10월 3일 통도사성보박물관 · 국립중앙박물관 공동 주최 순회특별전 '어메이징 타일랜드: 태국 불교미술' 개막식에서 참석 내빈들이 제막식을 거행하며 전시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프랑스 파리 밝힌 '한국불교'

한·불 수교 140주년 기념 일환
석굴암 특별전, 템플스테이 등


10월 3일 프랑스 길상사에서 진행된 템플스테이 참가자들. 사진 제공=국가유산청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불교 문화를 선보이는 행사가 마련됐다.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아 10월 1일 주프랑스한국문화원, 경주시 등과 함께 프랑스 파리 주프랑스한국문화원에서 특별전 '불교미술 천년의 신비, 석굴암'을 개막했다.

내년 3월 13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를 통해 신라인의 높은 정신세계와 불교예술의 깊이를 현지에 널리 알릴 계획이다.

전시는 문화원 3개 층에 걸쳐 석굴암을 입체적으로 조망한다. 특히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정밀 3차원(3D) 스캔 데이터로 구현한 석굴암 내부 실감영상이 압권이다. 관람객은 3면 벽과 바닥에 펼쳐진 영상을 통해 8세기 신라 불교건축의 신비와 본존불의 위엄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경주, 천년의 수도 속으로의 여행' 영상을 비롯해 석굴암 3D 복원 영상 상영, 고(故) 한석홍 작가의 석굴암 사진을 선보인다.

경주 사천왕사지 목탑 기단부를 장식했던 '녹유신장벽전(綠釉神將甓塼)' 복원품과 발굴 유물도 눈길을 끈다. 이승철, 손대현 등 현대 작가들이 석굴암에 담긴 이상과 염원을 재해석한 협업 작품들도 만날 수 있다.

불교문화 연계 행사도 성황리에 치러졌다. 1일과 2일 한국문화원에서 사찰음식 명장 정관 스님의 사찰음식 강연과 체험이 2회 진행된 데 이어, 3일 프랑스 길상사에서 주지 혜원 스님과 정관 스님의 지도 아래 발우공양과 좌선, 다도 등을 체험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가 진행됐다.

5일과 6일에는 한국문화원에서 선 명상·사찰음식 체험과 석굴암과 신라 불교문화 등을 다루는 학술 강연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몽드는 10월 2일자 신문을 통해 석굴암을 해발 750m 토함산에 위치한 '불교미술의 보석'으로 소개했다. 8세기 중엽의 뛰어난 예술·건축 수준을 높이 평가하고, 독창적인 공간 구성과 본존불의 웅장함·섬세함을 비중 있게 다뤘다.

배희정 기자

되찾은 보경사 불화, 수덕사서 한자리

영산회상도 · 지장보살도 기념전
11월 16일까지 근역성보관서 전시

포항 보경사 성보박물관(관장 탄원 스님)은 9월 30일부터 11월 16일까지 수덕사 근역성보관에서 '보경사 영산회상도와 지장보살도 환지본처 기념전'을 개최한다.

전시작인 보경사의 영산회상도와 지장보살도는 조선 후기인 1778년 제작된 불화로, 1999년 도난돼 오랜 기간 동안 환수를 위한 노력이 이어진 끝에 2023년 보경사로 돌아왔다.

앞서 8월 3일부터 9월 13일까지 보경사 성보박물관에서 열린 1차 전시에 이은 이번 전시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를 여덟 장면으로 그린 팔상도도 두 불화와 함께 선보인다. 조선 후기 불교회화의 특징과 보경사 성보의 역사적 가치를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다. 아울러 작품의 제작 배경과 도난·환수 과정, 환지본처의 의미 등을 소개하는 자료를 함께 전시해 문화유산을 지키고 되찾는 과정의 중요성을 전할 예정이다. 박물관 관계자는 "영산회상도와 지장보살도, 팔상도를 한자리에서 관람하며 당시 보경사 불화의 조성과 전승 양상을 살필 수 있다"며 "관람객들이 돌아온 성보의 역사적 가치와 이를 지켜낸 분들의 노력을 함께 되새겨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2026 K-뮤지엄 지역 순회 전시 및 투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전시 기간 중 연계 프로그램인 인경 체험도 진행된다.

배희정 기자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해탈과 자비를 지향한다

⑲ 본무자성(本無自性)

本 無 自 性

세상을 관조하면 선인과 악인, 증오와 자비, 전쟁과 평화처럼 서로 대칭을 이루는 현상들이 팽팽하게 맞물려 돌아간다.

이러한 양상은 과연 고정된 본질을 가진 실체인가[自性], 아니면 어떤 인연이 모여 한시적으로 드러난 현상[假有]인가? 우리는 흔히 악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 악한 행위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연기와 공성의 지혜는 어떠한 현상도 고정된 본질, 즉 자성(自性)을 지니지 않는다고 말한다. 악한 행위를 하기에 그를 악한 사람이라 부를 뿐이다.

불교에서 실상을 압축해 나타내는 기호인 '공(空)'을 풀어 말하면 '본무자성(本無自性)'이다. 명칭·형상·작용을 지닌 모든 존재는 본래 스스로를 그것이게 하는 고유의 성질을 지니지 않는다는 뜻이다.

용수보살의 〈중론(中論)〉 제1 '관인연품'에서는 이를 논리적으로 밝힌다. "모든 법은 스스로 생겨나지 않으며, 타자에 의해 생겨나지도 않고, 양쪽에서 혹은 원인 없이 생겨나지도 않는다." 현상계의 어떤 것도 배타적·독립적·불변하는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나아가 제24 '관사제품'에서는 "공의 이치가 있기에 일체법이 성립한다"고 역설한다. 만약 존재가 불변의 자성을 지닌다면 인연에 따라 생성·변화할 수 없으며, 세계는 멈춰버릴 것이다. 비어 있기에[空] 오히려 인연에 따라 무궁무진한 생성과 변주가 가능하다.

이러한 통찰은 서구 철학의 흐름과도 깊이 만난다. 데이비드 흄은 자아를 고정된 실체가 아닌, 지각의 다발(Bundle)로 파악해 독립적인 주체라는 관념을 해체했고,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는 세계를 고정된 사물의 집합이 아니라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건(Event)'과 '과정(Becoming)'의 흐름으로 보았다. 고정된 실체를 전제하는 형이상학에서 벗어나 관계와 맥락 속에서 존재를 바라보려는 이들의 사유는 본무자성의 논리와 맞닿아 있다.

본무자성의 공성은 허무주의가 아니다. 오히려 고정된 자성이 없다는 통찰은 삶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고정된 자아가 없기에 우리는 '나'라는 감옥과 탐욕의 굴레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를 수 있다. 나와 남을 가르는 고정된 실체가 없기에 타자를 나와 동등한 존재로 바라본다.

또한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돼 있음을 자각할 때, 자비는 거창한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 된다.

이는 칸트의 정언명령이나 벤담의 공리주의와는 다른 방식으로 자비의 근거를 설명한다. 모든 것이 본래 비어 있기에 우리는 서로를 살리며 매 순간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

본무자성은 곧 자유로운 생명의 선언이며, 공성과 자비가 하나의 지혜에서 비롯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화순 불암사 주지〉

